

제4회 포천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現場



올해로 4회째 맞는 포천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지난 3회까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어 인근 지역의 음식점 등 상가도 호황을 맞고 있다.

주말에는 2만여명이 몰려 겨울철 놀이 즐겨 주차장, 축제공간 확보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



올해로 4회째 맞는 포천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비명을 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관광객들을 불러모을 수 있었을까? 불고기, 떡볶이, 살거리, 체험프로그램과 주변의 이종갈비타운, 온천야영, 겨울산행과의 연계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먼저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얼음기둥을 만들었다. 동장군축제의 상징물로 인간의 손에 의한 인위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운계곡을 닮아 물과 바람과 나무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모양의 얼음기둥 작품 20여점을 백운계곡을 따라 걸으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눈동산 토끼놀이장 안에 이글루, 캐리커, 용 등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얼음작품을 전시하여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장군축제의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이글루 안에서는 아이스크림도 판매하여 동심을 즐겁게 하기도 했다.

전통음식체험관의 인기 또한 대단하다. 추억의 도시락, 잔치국수, 두부김치 등 이동지역 아줌마들이 만들어 주는 맛갈난 음식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으며 고무마와 감자를 모닥불에 구워먹는 체험도 가능하다. 특히 전통음식체험관 앞 마당에서는 직접 기른 흑돼지 고기를 구워먹는 행사로 어른들뿐만 아니라 신나게 놀고 난 어린이들의 인기를 재워주기에 충분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오고 있다.

아울러 포천시 농특산물 판매와 동장군축제 기념품 판매 등 살거리도 제공하고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으로 1만원에 개인 자유이용권을

구입하면 눈동산 토끼놀이, 계곡 튜브 눈썰매타기, 팽이와 얼음동산, 전통 얼음 썰매, 모닥불 피우기, 나무놀이 공예, 어린이 체험 뉴시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운계곡동장군축제 조직위원회 장비부 부위원장(사진)은 "그동안 어렵게 노력한 결과 하나 둘씩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축제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며 "제5회 축제에는 이번 축제를 겨울삼아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글루의 경우 지름 6m60cm, 높이 3m로 그동안 국내에서 제작한 어떤 얼음집(에스키모인)의 전통기법보다 크게 제작했다고 강조한다. 또 포천시의 상징새인 원앙을 전시하여 포천시의 이미지를 기억하게 했다.

장 부위원장은 진행상 문제점에 대해 "주차장이 협소해 주말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올 경우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며 "장소선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보다 넓은 장소 선택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8년 포천시 예산안중 동장군 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에 대해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어 할 말이 없으나 올해 축제를 잘 마무리하여 성공한다면 포천시에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축제가 마무리될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그러나 지난3회까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포천시 지원예산도 2008년도에는 전액 삭감되는 등 아재가 겹쳤다. 이례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동장군축제위원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불고기 아이템은 결국 관광객들을 불러오게 되었으며 주변 상가는 즐거운



나무꾼종말놀이



얼음썰매장



전통썰매장



팽이타기

특별기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영마인드

“타시군의 좋은 점과 혁신사례를 과감히 벤치마킹 해야”

김현목
신원기업부동산 정책보좌관
내한노조위원장 4대위원장



얼마 전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공기업혁신연구회' 초창기때부터 아주 감명 깊은 특강을 들은 적이 있다.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의 저자가 리더십과 혁신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남 장성군의 혁신과 변화를 실감나게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몇 년전 대통령께서 읽고 감동을 받아 공무원들에게 읽어볼 것을 권고했을 만큼 공직사회에서는 꽤나 유명한 책이기도 하다.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던 "혁신이라는 일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으며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사립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시사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혁신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장성군을 추천하게 된 이유로 혁신은 추상적이고, 피곤하다라는 오해가 컸으나 혁신의 참된 의미를 자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며, 자신의 업무를 끊임없이 개선, 개발, 혁신하면서 부가치를 높이는 지식공무원을 육성하는 것으로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실무자들의 전문성, 헌신, 열정과 집착시켰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민선직후 전남 장성군은 인구 5만여명, 낮은 지평도, 16~18%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작은 농촌 지자체의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으나 김홍식 장성군수는 주식회사 장성군의 강판을 내걸고 공무원에서 일류기업체 회사원 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CEO(최고경영자)가 되어 임직원의 장성군 공무원과 함께 군민을 주주로 모시고 일하며,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

해 임기 내 출근 장성군을 혁신의 선두주자로 만들어 나갔다. 특히,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인식 하에 공무원과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혁신의 주체로 변화시켜 나갔다. 1995년 9월 장성아카데미를 개설, 매주 개최해 그동안 5000여차례 이상 외부강사진 등을 초빙해 교육을 해 왔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자체 최고의 교육계를 신설하며 군수의 관심과 열정으로 출신수반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 공무원의 유럽 배낭연수를 보내는 획기적인 사건의 전환을 보여 주었다. 1995년 이후 2001년까지 370여명의 공무원이 10박 11일간의 유럽연수를 시켜왔으며 장성군 농민과 택시기사까지도 해외 연수를 시키는 과감한 결정을 하였다. 공무원과 주민에게 해외연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으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과감한 의 사결정이야 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전 장성군 공무원을 3박 4일씩 민간기업 연수원에서 위탁 연수교육을 받도록 해 변화와 도전정신, 고객만족, 공무원 품질경영 마인드를 갖도록 하였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 일하는 방식이 달랐다고 한다. 모든 것을 전자 최초로 만들어갔다. 첫 전국 최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주민 1인 1PC 운동을 전개하였다. 토지민원행정 종합전산화, 주택 패션화 작업 등 시도하는가 하면, 민원인 10대 권리장전, 생활민원기동처리대, 장례도우미 제도, 군민들의 걸기, 금전, 술잔 안 돌리기 운동 등 생활속의 군민 폭력운동을 실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해 나갔다.

너무나도 혁혁하다. 어려운 여건 하에도 목목히 열심히 일하는 포천시의 지역일꾼들이 듣기에는 다소 거북스럽게 들릴 지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귀를 열고 타시군의 좋은 점과 혁신사례를 과감히 벤치마킹하는 사건의 발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자체장이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키고,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며, 투명행정, 열린행정, 참여행정을 실천하는 일이다. 또한 한 교육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주의와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모든 일에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일이다. 현장에 문체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며, 결정은 신중하게 집행은 소신 있게 하며, 최고, 최후에 대한 확신과 모든 혁신은 반드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행정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포천시는 도농복합형의 수도권 위성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의 불평거리의 대상인 상습적인 교통정체 현상, 부족한 문화시설, 다소 치밀하지 못한 난개발, 상대적인 개발정체 등 외부에는 여전히 소외와 낙후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수려한 청정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휴양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한낱 주말 드라이브 코스에 머무는 초라한 관광현실이다.

서울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불구하고 개발과 성장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조만간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포천시를 이끌어 나갈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가야 할 포천시는 장성군의 성공적인 혁신 성공모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식회사 포천시를 지향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포천시의 단체장과 공무원, 도의원, 시의원 등 비단 지역일꾼들에 국한된 과제가 아닌 포천시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포천시가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는 대변신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자유기고

태안반도의 검은 눈물



윤순옥
전 포천지역의회의장

안개가 소리없이 온세상을 품어 안고 있다. 새벽5시! 미로 같은 안개터널을 버스는 태안을 향해 서서히 달리고 있다. 기류유출사고이후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보지 않은 마음이 죄스럽기까지 했었는데 내가 함께 했던 포천의제2에서 추진해 40여명이 떠날 수 있었다. 현장에서의 활동할 수 있는 인내와 돌아올 때까지 무사귀환을 설명하고 준비된 간단한 도시락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조용한 가운데 10시가 조금 넘어 버스가 도착했다. 준비한 우의와 장화로 작업태세를 갖춘 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바닷가까지는 도보로 2km를 걸어야 했다.

유출사고현장에 임시도로를 만들었는데 바다의 풍광과 잘 어울려진 야산하리를 사정없이 잘라내었고 여기저기 팔팔고 있는 커다란 나무모닥들이 보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

바닷가에 도착하니 물이 빠진 뒤 굴양식장과 김양식장에 썰렁한 설치물들이 버티고 있고 일렁이 없어진 굴밭들이 더뚱거리고 있어 엄청난 재앙의 사연을 말해주는 듯하다. 풍요로운 바다에는 갈매기가 쉽게 날고 있을텐데 갈매기 그림자도 소용없어 한점 보이지 않아 슬슬한 사해같은 느낌이 든다.

곳곳에 많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닦고 있어 우리들도 오 염도 심한 곳을 찾아 부지런히 일을 시작했다.

처음 상황보다 거의 한달이 지난 듯하니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작

고 큰 비위에서 검은 눈물이 따스한 햇빛을 받고 연신 흐르고 있다. 곧았다 녹았다 하면서....

1월의 날씨 답지 않게 포근해서 서투른 일복에도 눈물은 울림만큼 최고의 날씨였다. 크고 작은 돌들은 얽었다 제멋대로 튀어나내리고 있던 노란 고무장갑은 어느새 깨먼기를 잠깐이 되었다.

오고가는 시간을 제하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4~5시간에 불과하다. 수십만명이 다녀간 흔적은 이나와 일래의 모습을 향해 가고 있지만 바위속 깊은 곳에 질척한 원유가 아직도 많다.

다워진 기름결레의 산더미같은 폐기물! 거기에는 우의, 장화까지 엄청난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있어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금방이라도 통곡으로 바뀔 것 같다. 태안군청에서도 사용했던 장비들을 질서있게 보관하면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어 폐기물 양을 줄일 수 있을 텐데 한번 쓰고 버린 것은 폐기물뿐만 아니라 고가품이었던 원유 규명을 제대로 해서 아름다운 태안반도를 황폐화시킨 책임은 그들에게 꼭 지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다를 염으로 삼고 삼아간 어민들의 분노의 모습은 볼 수 없고 복구에 지친 그분들이 이 겨울을 어찌 보낼까 생각하니 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우리가 쓰던 장비들을 놓고 울러 고 하니 태안군청 직원이 "가져 가시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런말을 그럴까 하면서도 답답했다.

다시 행거서 차에 싣고 오면서

다시 한번 같기회를 마련해 다시 쓰자는 제안을 했다. 기회가 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은 가고 싶다고 다들 말한다. 좀더 참여인원이 많아서 태안반도의 옛모습을 찾기 위해 힘없이 검은 눈물을 닦아내야 한다.

한 순간, 부지조, 이런 것으로 닦아야 좀 잘 닦여지지 나이론 섬유는 힘만들고 닦여지지 않아 면 종류의 한우, 수건이 제일 좋은 것 같다.

한 순간의 부주의가 이처럼 고통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니 거기에 대한 예방책으로 정부에서 최대한 예산을 세우고 인원을 참여시켜 훈련도 하고 했다지만 이번 사고에는 무용지물이었다니 피눈물 흘린 열매만 남았었다는 어찌구무 없는 일들이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킨다. 어려울 때 하나가 되는 저력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지금도 태안반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살리기 위해 모든 이들의 마음이 태안을 향하고 있다.

맑은 하늘이 겨울처럼 투명하다. 살아 숨쉬는 자연의 모습을 하늘을 향해 소원해본다. 자연의 힘으로 태안반도의 아름다움 되찾아주기 위해 모든 이들의 마음이 태안을 향하고 있다.

맑은 하늘이 겨울처럼 투명하다. 살아 숨쉬는 자연의 모습을 하늘을 향해 소원해본다. 자연의 힘으로 태안반도의 아름다움 되찾아주기 위해 모든 이들의 마음이 태안을 향하고 있다.

맑은 하늘이 겨울처럼 투명하다. 살아 숨쉬는 자연의 모습을 하늘을 향해 소원해본다. 자연의 힘으로 태안반도의 아름다움 되찾아주기 위해 모든 이들의 마음이 태안을 향하고 있다.

동장군 축제에 다녀오다

이 지연
박정영기자, 포천노 4년



이글루 앞에서

방학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답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산문을 보니 포천 백운계곡에서 동장군 축제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나도 한 번 가 봐야지,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 고장을 구석구석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시니까 꼭 함께 가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었다.

그런데, 4일부터 시작한다는 동장군 축제에 가고 싶어서 하루하루 날짜를 세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부모님께서는 바쁘시다는 핑계로 또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서 교통도 막히고 놀기도 어렵다는 핑계로 아무런 널 모래, 또 널 모래 하시는 것이었다.

동장군이, 그리고 눈썰매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루기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신문에 나와 있는 안내에 따라 나 혼자만의 여행에 도전 해 보기로 했다.

“엄마, 저 혼자 동장군 축제에 다녀올게요. 축제 자유 이용권이 11,000원이라고 하니가 갈 때 울 때 교통비하고 점심 값까지 모두 2만원만 주세요.”하고 부탁드렸다. 혼자 잘 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걱정에는 “휴대폰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했고 혼자 쓸쓸한 텐트.....하는 걱정에는 “그 곳에 다른 애들도 놀고 있을 것이나 함께 놀게요.”하고 말씀드린 후 동장군에 패셔를 갈기 걸리지 않도록 완전 무장하고 포천터미널에 도착했다.

신문에, 포천터미널에서 도평리, 터미널까지 가고 그곳에서 사정리

행 버스로 바꿔 타야 한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포천터미널에서 “도평리 까지 가려면 몇 번 타야 하나요?”하고 여쭙어 보았더니 시정 앞에서 좌석 버스를 타고 갔다. 그래서 시정 앞에서 600원 좌석버스를 탔는데, 부모님께는 큰 소리 치고 나왔지만 혼자서 처음 하는 여행이 불안하여 앞자리에 앉아 운전기사 아저씨께 동장군 축제장 가는 길에 대하여 여쭙어 보았다.

아저씨께서는 “동장군 축제장 가는 버스가 있기는 한데 어쩌다 한 번 씩 오기 때문에 버스 못타고 갈 걸?”하셨다.

도평리 터미널에서 내리니 곳곳에 동장군 축제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축제장이 멀 리 있지 않을 것이라곤 짐작하고, 사람들에게 가는 길을 물어서 걸어가기로 했다.

백운계곡에서 흘러오는 물줄기를 따라 경치를 구경하며, 또 개천에 얼어붙은 얼음을 지치기도 하며 천천히 50분 정도 걸어가니 축제장이 나왔다. 가는 동안 도평리에 지나가는 차에서 친절한 아저씨나 아줌마께서, 축제장 가는 것이라면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어른들의 친절을 감사하긴 하지만 리지 못하는 현실이 마음 아팠다.

축제장에 도착하여 안내소에서 “동장군 축제 홍보지 주세요.”했더니 주말에 다 나가고 없어서 다시 주문 했다고 하며 주지 않아서 섭섭했다. 내에게는 내가 걸학한 곳이나 체험할 곳의 홍보지를 모아 두는 취미가 있기 때문이다.

11,000원을 내고 자유 이용권을 구입하여 신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에스키모의 이글루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얼음 조각 풀들도 감상하고 토끼를 잡으러 뛰어다니기도 하다가 얼음썰매도 타고, 눈썰매도 타고 아무도 없는 빈관 위에서 혼자 팽이치기 놀이도 했다. 팽이 체험 장 옆을 보니, 나무 곤충 만들어 보는 것이 있어서 해 보려고 하니 4,000원을 내라고 했다. 자유 이용권에 포함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4,000원을 내고 거미를 만든 후 동장군 축제 기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했더니 주말에 너무 많이 써서 도장 찍는 것이 고장나서 고

쳐러 갔기 때문에 못 찍어 준다고 해서 또 섭섭했다.

가족끼리 둘러앉아 모닥불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참 뿌듯했지만 저 사람들은 나처럼 혼자만의 여행경험은 없을 걸? 하며 나 스스로를 위로했다.

다행이도 가는 곳마다 안전요원 언니오빠들이 친절하고 다정하게 동장군 축제장 가는 길에 대하여 여쭙어 보았다.

신나게 놀다보니 배가 고파졌다. 그런데 내 지갑에는 모두 3000원이 들어있었고 그것은 집에 갈 교통비이다. 점심 값으로 아이스크림과 나무곤충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를 들으며 할 수 없이 아쉬운 표정을 돌렸다.

도평리 터미널까지 걸어 내려오며 ‘차가 없는 사람은 오지 말란 말인가? 나 같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모두 방학이나 부모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친구가 리라고 와서 놀러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하고 교통편도 잘 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포천시의 모든 사람들의 다른 도시의 공원으로 놀러가지 않고 모두 포천시의 축제장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조금은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 축제기간동안 도평리 터미널에서 축제장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버스에 앉아 옆에 앉은 아저씨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저씨께서는 “내년부터는 포천에서 동장군 축제 체험 안내하는데 뭘?”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동장군 축제를 준비하는 분들도 축제에 와서 나처럼 섭섭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든 다른 지역의 겨울철 놀이 시설보다 더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할 것이고, 우리 포천시도 동장군에 조금 더 잘 사는 시가 되도록, 다른 도시 사람들 우리로 오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포천 시민이 다른 도시로 놀러 가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더 많이 배려해야 할 것이다.

겨울마다 열리는 동장군 축제

한석규
박정영기자, 신복초 5년



토끼놀이 현장

매일 겨울마다 열리는 동장군축제, 오늘은 그 동장군축제에 가는 날이다. 두근두근, 동장군축제에 매년마다 교육에서 가는 나 이렇듯, 매일매일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그리고 동장군축제에 온 나! 역시! 동장군축제의 나무썰매와 눈썰매, 특히 유기현(삼정4대)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은 무척이나 멋있었다.

그리고 목사님이 눈썰매란...카야, 정말 환상적이었다. 눈을 질주하는 우리 목사님, 정말 멋있었다. 그리고 토끼놀이도 있었다. 토끼를 잡으러 이리저리 뛰는 우리들, 참 지루 생각해도 웃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한번 쪼개서 동장군축제를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